

哲學 上으로 본 生存의 意義(完)

哲學의 定義와 實在探究의 形式

韓稚振

肉體的 惡과 苦痛을 論하여도 一般이다. 今日의 人類文明은 以上에 論示한 肉體的 苦痛, 卽 自然的 障礙가 잇슴으로 因하여 그것을 征服하여 얻은 功績을 文明이라 하는 것이다. 各種의 病魔가 無하엿드면 醫學의 發達을 보지 못하엿을 것이다. 寒暑가 업섯드면 家屋 衣服凡節을 發明치 못하엿을 것이다. 耕作치 안코도 自然的으로 百歲을 豊富히 秋收하게 되엿다하면 農事에 對한 技術이 發達되지 못하엿을 것이다. 사람은 먹고 살기 爲하여 모든 障礙를 除却하기에 努力한다. 이 努力中에서 各種의 學術이 生起인 것이다. 以上을 보아서 그 얼마나 惡과 不義가 人生發達에 必要한 條件이 되는지 可知하지 안켓는가 우리는 苦痛과 不義를 當面 할 때에 우리 人格의 修練發達 할 機會가 온 것을 自覺하고 奮鬪 할 것이다.

萬若이 世上에 아모런 障礙와 惡毒이 업다하고 보면 그 무슨 意義잇는 生活이라 할가? 사람은 活動의 動物이어늘 障礙가 업다는 말은 活動이 업다하는 뜻이다. 活動업는 사람과 社會는 곳 죽은 사람이오, 社會이다. 眞正한 生活은 惡과 不義와 싸우는 뜻이다. 文明은 이 鬪戰의 結晶이다. 萬活이 不義에 對한 戰爭을 回避하고 自暴自棄하여 失望悲觀하는 者는 비록 文明한 社會에 居한다 하드래도 未開 野蠻이라 할 수 맞게 업다.

以上에 論示한 것에 依하여 萬一 우리 사람의 生活에 惡이란 것이 必要하다면 우리의 地上生活이 持續되는 그 때까지 惡과 不義가 同存케 될 것이 안인가 그러면 이 恒久한 罪惡이 사람들로 하여금 落望하여 冷情하여지고 無爲해 지지나 안이 할가? 사람마다 恨歎하되 『惡을 征服할사록 그 比列로 惡이 續出 할 것이오 苦痛煩悶의 世上은 恒常이 模樣일 것이니 그 싸진 것 努力奮鬪는 해서 무엇 하느냐 개가 自己의 소리를 물어 보겟다고 애쓰는 것과 同一할 것을』이라고 自暴自棄나 안이 할가?

그러나 사람이 先天的으로 病身이 안이면 그리케 自暴自棄는 안이 하는 줄

안다 사람 된 本分과 職責을 다 하려는 이는 아모리 環境이 어렵다 하드래도 落望은 안이 하리라 한다. 落望과 自暴自棄는 사람의 本意가 아니다. 一種 意外의 病的 狀態이다. 도리혀 勇氣를 내이고 奮鬪하는 것이 사람의 本質이다. 그는 사라 보겠다고 혹 不幸이 있다 하드래도 別手段을 다 해야 그것을 悲觀 치안이 하려한다. 이럼으로 내가 失手하여 眼鏡을 깨칩스면는 상하지 안흔 것을 大幸으로 생각하며 돈 一圓을 失하였스면 十圓일치 안흔 것을 多幸으로 알냐하는 것이다.

農夫가 明年春期에 耕作의 苦勞가 있다 해야 今春의 耕作을 度外視하지 안코 도리혀 快念을 가지는 것이다.

饑餓人이 다시 饑餓가 잇슬가 해야 只今에 먹기를 努力치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다시 배급홀 줄을 썬썬히 알면서도 오날의 職責을 다하기 爲하야 勞動하기를 게을르게 안는다. 이런 故로 惡이 있다고 落望 할 바 업스며 도리혀 그것과 싸우는데서 生存의 眞味를 엿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는 根本 뜻이다.

五. 結論

生存의 意義는 結局 人間自體 發見하였다. 사람 自身을 發見하는 것이 最後 目的이 되었다. 사람의 마음이 이 世界萬物을 惡으로 만들든지 善으로 만들든지 左右하게 되었다. 사람 마음 안에서 超人間的 努力 發見하였다. 여기서 宇宙의 支配者 神을 차졌다. 우리의 肉體는 하나님의 聖殿이다. 罪와 地獄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썬나게 할 罣에 생기는 것이다.

이 世上에 아직 苦痛과 罪惡이 잇스나 이는 義人을 試驗하는 手段이다. 故로 이것을 참고 익이면 義人이 되는 것이다. 엿던 罣에는 義人이 無罪히 犧牲을 當하기도 하나 이는 生活의 失敗가 아니다. 義人은 當場 苦痛에 못견대여 他人을 無視하고 하나님을 否認하지 안는다. 眞正한 義人과 宗教人은 利解 觀念을 超越하였다. 惡人이라도 所有 할 수 잇는 當가 업다고 自己의 公正한 마음을 否認하고 神을 蔑視하는 것은 近視이오 卑屈하다 善人이 참고 勝利하는 惡과 不義가 잇다하야 自己의 能力을 否認하고 失望하는 것은 人으로서의 本意가 아니다.

사람은 努力 聰明 愛의化身이오, 自己의 思想을 左右한다. 그는 自己의 一切環境을 開拓할 키-를 가졌고 自己를 願하는 대로 만드는 更生의 意志力을 가졌다. 이럼으로 사람은 언제든지 自己의 主人이니 이는 가장 軟弱하고 隨落한 處地에 잇슬 罣의 그는 自己의 짐을 잘못 治理하는 愚鈍한 主人이다. 그러나 그 不幸한 處地를 反省하고 自己의 根本이되는 偉大한 內在的 生存法則을 깨닫는 罣의 그는 곳 智慧롭게 自己의 能力을 支配하야 善한 結果를

맺는 開拓者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自己의 眞正한 主人이다. (前回は 第四回)